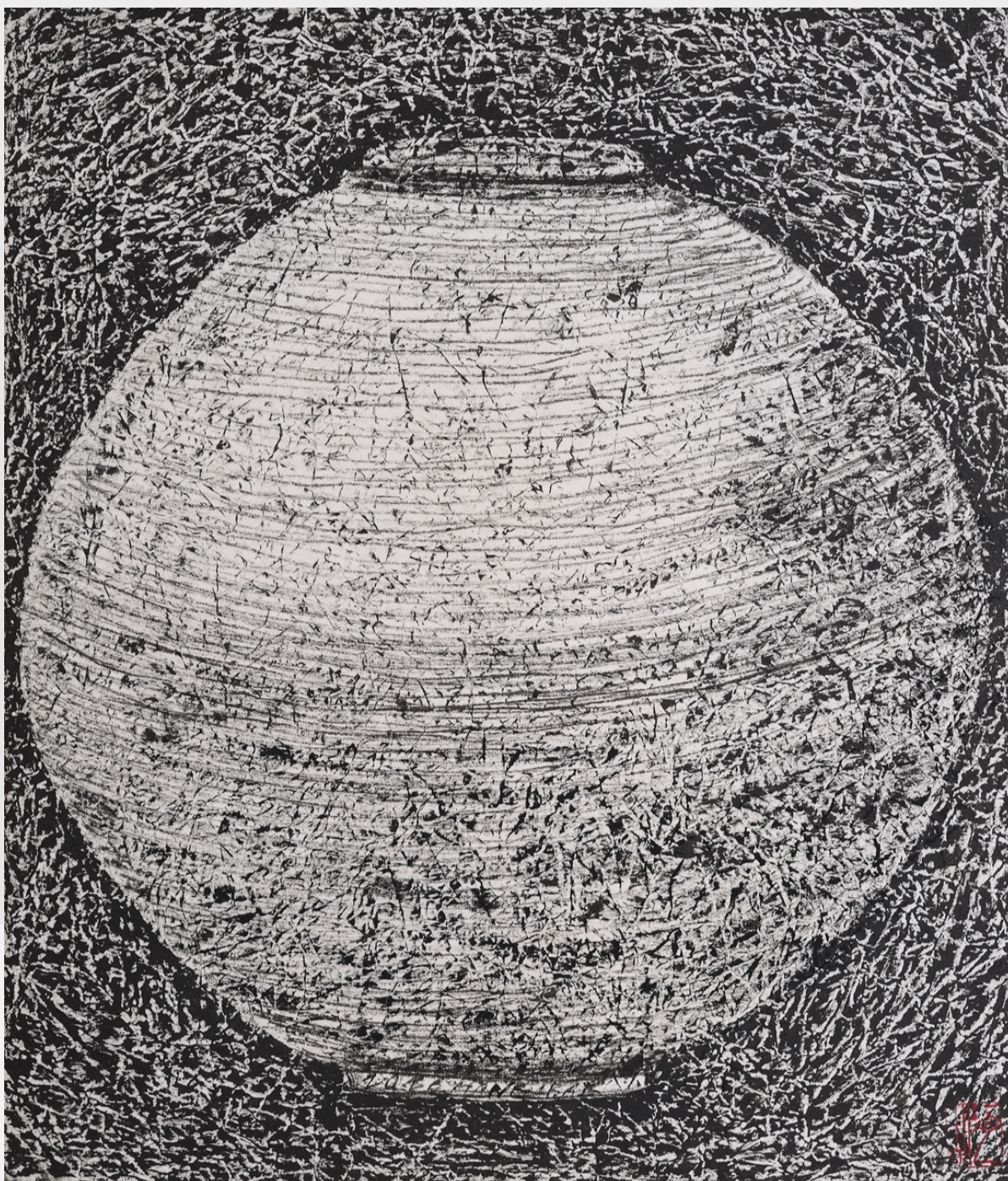


외부의 기세

작업기록

| 항백 박덕준

도자기를 통해 발견한 관계론 서법
- 추사의 내기·외기 개념을 조형으로 확장한 첫 번째 사례



항백 <달항아리> 53 × 43.5 cm 한지에 먹



프롤로그

사람들은 글자를 읽지만,
나는 필선이 연주하는 음악을 보여주고 싶었다.



서예에서 문자를 빼면 무엇이 남는가

이 질문은 오랫동안 내 작업의 중심에 있었다.

서예 작품 앞에서 사람들은 글자를 읽는다.

글자의 뜻을 이해하려 한다.

그러나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글자의 의미가 아니라 필선이었다.

필선 하나하나의 기세이며,

그 기세들이 서로 관계하며 운이라는 음악을 연주한다.

그래서 나는 문자를 빼기 시작했다.



왜 도자기인가

어느 날 문득,
선으로 형태를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 도자기를 선택하였다.

관심은 오직 하나였다.
반복되는 필선만으로 형태를 만들 수 있는가.

이때까지는 도자기가 문자를 대신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



필선으로 항아리 형태를 표현한 첫 번째 실험

1차 작업

- 반복되는 필선으로 형태를 표현할 수 있는가?

반복되는 필선만으로도 형태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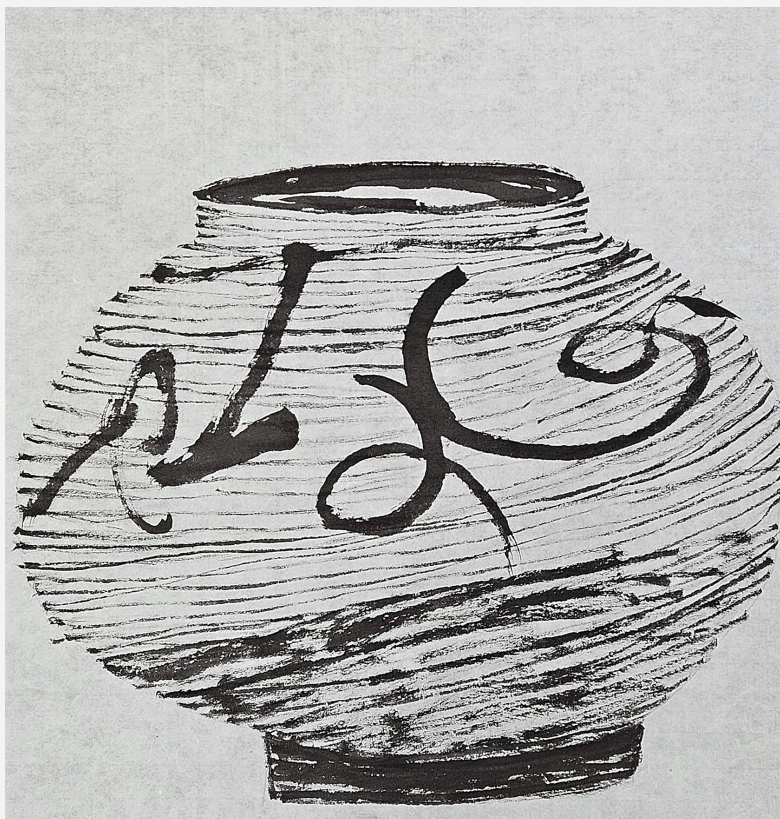
그 방법으로 달항아리를 시작으로 분청, 유문항아리 등으로 작업을 이어 갔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다음 판단이 나타나지 않았다.

작업은 그대로 멈추었다.



필선에 의한 1차 작업 - 달 항아리



필선에 의한 1차 작업 - 분청사기



필선에 의한 1차 작업 - 버드나무문 병



2차 발견

- 외부도 하나의 세계가 될수 있는가?

그러나 그 다음 판단은 나타나지 않았다.

작업은 그대로 멈추었다.

약 6개월 후, 다시 작품을 바라보았다.

그때 처음으로 내부와 외부의 관계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당초 나의 질문은 문자를 빼고 필선의 기세만 남기는 것이었다.

도자기를 필선으로 표현하면서 내부의 기세를 얻을 수 있었다.

관계론 서법에서 내부의 기세는 외부와 대응한다.

기존의 서법은 외부로 공간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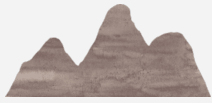
그러나 외부로 공간이 아닌

또 하나의 기세로 대응시키는 것은 새로운 개념이었다.

외부는 단순한 여백이 아니라 내부와 대응하는 또 하나의 기세였다.

외부의 기세가 만들어질수록 내부의 기세도 함께 변화하였다.

내부와 외부는 서로 관계하며 작품을 완성으로 이끌었다.



새로운 개념

- 도자기도 문자를 대신하는 조형적 소재가 될 수 있다.

이 발견은 도자기 작업의 의미를 새롭게 바꾸었다.

나는 사군자를 문자를 대신한 그림으로 이해하였다.

대나무는 문자를 대신하는 소재이며,

소나무와 집은 문인화에서 문자를 대신하는 소재라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을 관계론 서법에 적용해 보니,

도자기와 같은 조형적인 사물도 문자를 대신하는

새로운 소재가 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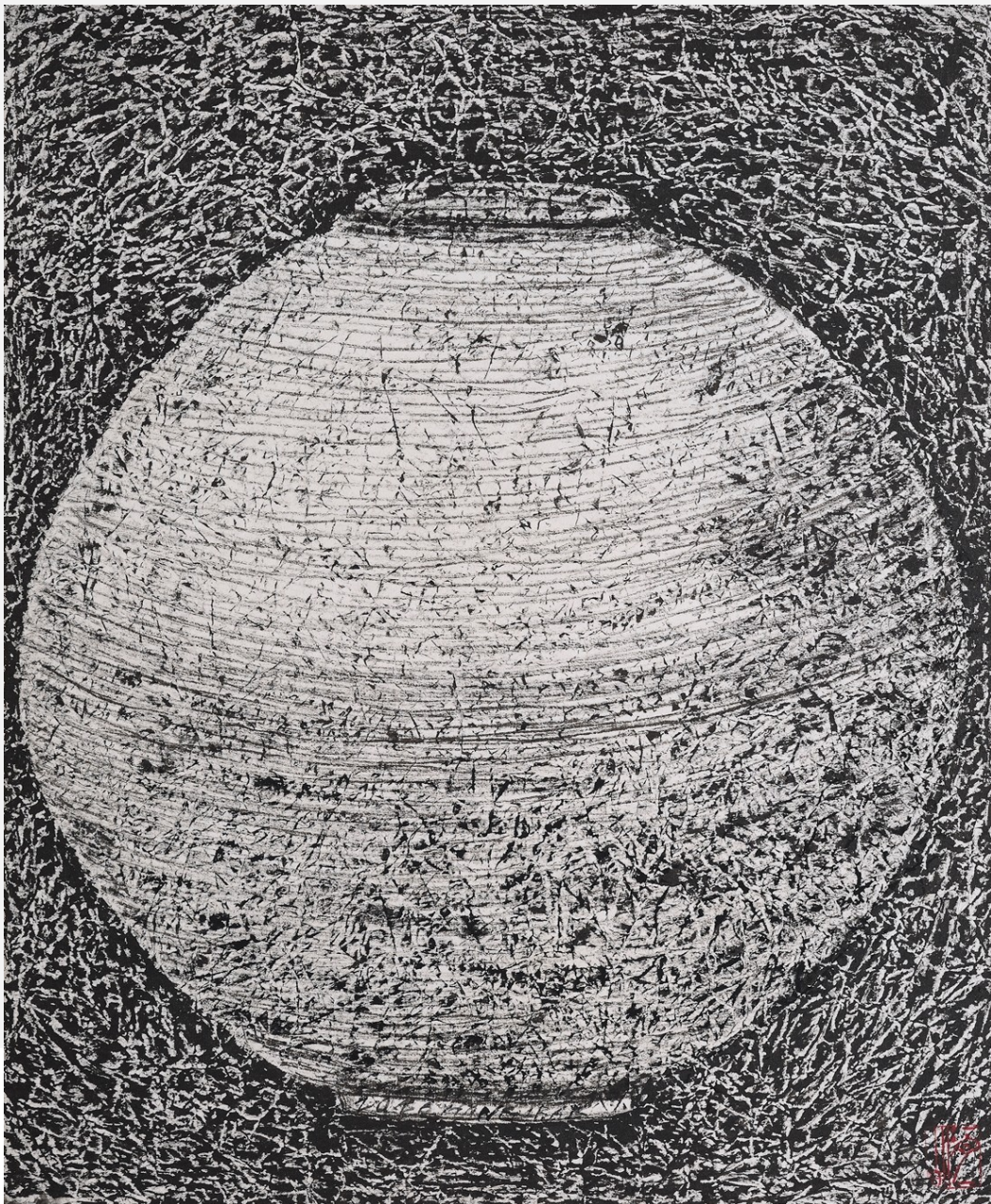
도자기는 하나의 결론이 아니라,

관계론 서법이 문자를 넘어 조형으로 확장되는 첫 번째 사례였다.

〈달항아리〉

내부와 외부의 기세가 처음으로 대응한 작품

외부의 기세를 만들어 갈수록
내부의 기세도 함께 변화하였다.
외부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내부와 조응하는 또 하나의 기세이다.



항백 〈달항아리〉 53 × 43.5 cm 한지에 먹 2026

〈분청사기〉

필선의 기세를 더욱 적극적으로 드러낸 작업

분청의 철화 무늬는 내부의 기세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외부의 입장에서 상대인 내부를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외부의 기세는 상대인 내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판단의 결과이다.



항백 〈분청사기〉 53 × 43.5 cm 한지에 먹 2026

〈새 항아리〉

기세의 충돌에서 운이 더욱 선명해진 작업

항아리의 내부는 작고, 외부는 더 넓은 화면을 차지한다.
이처럼 균형을 잃기 쉬운 화면에서 외부의 입장은
상대인 내부의 기세를 어떻게 더욱 돋보이게 할 것인가에 있었다.
외부 작업이 진행될수록 내부의 기세도 그에 대응하며 더욱 강해졌다.
두 기세는 도자기의 가장자리에서 마주한다.
그 충돌 속에서 운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새는 그 운이 머무는 자리이다.



항백 〈새 항아리〉 53 × 43.5 cm 한지에 먹 2026

〈버드나무문 병〉

내부와 외부의 관계가 더욱 섬세해진 작업

유문항아리의 무늬는 강한 기세보다 섬세한 기세를 가진다.

외부의 입장에서 상대인 내부의 기세를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강한 외부의 기세보다 다른 판단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도자기와 외부의 기세 사이에 하나의 완충지대를 두었다.

그 완충지대는 내부와 외부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었고, 화면의 긴장감은 이러한 판단의 결과이다.



항백 〈버드나무문 병〉 34 × 75 cm 한지에 먹 2026

〈분청편병〉

제3의 공간으로 관계를 더욱 확장한 작업

편병의 내부는 기존 편병의 무늬를 응용하여 기세를 표현하였다.
외부는 내부와 직접 대응하지 않고, 그 사이에 제3의 공간을 두어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였다.

이 제3의 공간은 유문항아리에서 시작된 완충지대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이다.
관계는 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제3의 공간을 통해 더욱 깊어진다.



항백 〈분청편병〉 33 × 48 cm 한지에 먹 2026



결론

도자기를 통해 확인한 것

도자기는 하나의 소재였다.
그러나 이 작업을 통해
도자기의 외부도
하나의 기세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외부를 공간이 아니라
기세로 인식하는 순간,
문자에서 작동하던 내기와 외기의 원리는
조형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었다.
도자기는
그 첫 번째 사례이다.

결론 이후, 〈천간문병〉
앞선 도자기 작업의 전이



항백 〈천간문병〉 38 × 58 cm 한지에 먹 2026

도자기 내부의 필선은 지난 작업인 천간(天干) 구조의 변형이다.
외부의 기세는 더욱 강화되었고, 내·외부가 대응하여 하나의 구조가 되었다.
이 작업은 이후 〈아리랑 구조〉로 이어진다.